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갈라디아서 3주차 (5:2~6:18)
(2015년 1월 18일 - 2015년 1월 24일)
(제 2권 4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2 권 -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 월 1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
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볼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
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
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
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2~6)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2절) 보십시오. 나 바울이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Ἴδε ἐγὼ Παῦλος λέγω ὑμῖν)
만약 당신이 할례를 받는다면 (ὄτι ἐὰν περιτέμνησθε.)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Χριστὸς ὑμᾶς οὐδὲν ὠφελήσει.)
- (3절) 내가 할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μαρτύρομαι δὲ πάλιν παντὶ ἀνθρώπῳ περιτεμνομένῳ)
[그들은]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ὅτι ὀφειλέτης ἐστὶν ὅλον τὸν νόμον ποιῆσαι.)
- (4절) 당신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버려졌습니다 (κατηργήθητε ἀπὸ Χριστοῦ,
당신들은 누구든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합니다 (οἵτινες ἐν νόμῳ δικαιοῦσθε.)
당신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τῆς χάριτος ἐξέπεσατε.)
- (5절)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온 성령으로(안에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γὰρ πνεύματι ἐκ πίστεως ἐλπίδα δικαιοσύνης ἀπεκδεχόμεθα.)
- (6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ἐν γὰρ Χριστῷ Ἰησοῦ οὔτε περιτομὴ τι ἰσχύει οὔτε ἀκροβυστία)
오직 사랑을 통한 믿음만 일을 합니다 (ἀλλὰ πίστις δι’ ἀγάπης ἐνεργουμένη.)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만이 유효함을 논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논증을 마무리하고 권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갈 5:2-6)은 논증을 마무리하면

서 권면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바울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갑니다. 마치 스타카토 스타일 (staccato style) 같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할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할례를 받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완벽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떠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전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2 절)

주장: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다(3 절)

주장: 당신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버려졌습니다(4 상)

주장: 당신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4 중)

주장: 당신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졌습니다(4 하)

주장: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온 성령으로(안에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5 절)

주장근거: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한 믿음만 일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한 경고를 내립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켜야 할 규칙, 율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로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를 측정하기 위해 술과 담배를 그 척도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행위를 친밀도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도의 척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쉽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입니다. 어떤 행위를 끊지 못해 안달하며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것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신들(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사도 바울 일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들”에게 던진 말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소위 “당신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들 네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이 글을 읽고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율법에 매여 있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율법주의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강의를 하다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마셔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면 마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갑자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끊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신들의 행위나 타인들의 행위에 대해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거나 자신조차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판단이 불법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것을 추구하고 자신이 그르다고 생각한 것은 배척하려고 애를 쓰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율법적 행위입니다.

5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율법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아래 있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7~12)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8.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원어해석하기

- (7절) 당신들은 잘 달렸었습니다 (Ἐτρέχετε καλῶς·)
누가 당신들을 방해하여 진리에 설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까?
(τίς ὑμᾶς ἐνέκοψεν [τῆ] ἀληθείᾳ μὴ πείθεσθαι;)
- (8절) [당신들을 설득한] 그 설득은 당신들을 부르신 분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ἡ πεισμονὴ οὐκ ἐκ τοῦ καλοῦντος ὑμᾶς.)
-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립니다 (μικρὰ ζύμη ὅλον τὸ φύραμα ζυμοῖ.)
- (10절) 나는 당신들을 대하여 주안에서 확신해왔습니다 (ἐγὼ πέποιθα εἰς ὑμᾶς ἐν κυρίῳ)
당신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ὅτι οὐδὲν ἄλλο φρονήσετε·)
당신들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ὁ δὲ ταρασσὼν ὑμᾶς βαστάσει τὸ κρίμα,)
그가 누구이든지 (ὅστις ἐάν ᾗ.)
- (11절)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Εγὼ δέ, ἀδελφοί, εἰ περιτομὴν ἔτι κηρύσσω,)
왜 내가 아직도 박해를 당합니까? (τί ἔτι διώκομαι;)
그러면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부끄러움]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ἄρα κατήργηται τὸ σκάνδαλον τοῦ σταυροῦ.)
- (12절) 너희를 요동케하는 자들이 [스스로] 남성성기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Ὅφελον καὶ ἀποκόψονται οἱ ἀναστατοῦντες ὑμᾶ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대해 집중적인 경고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 즉,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간접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

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되고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가르쳐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과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설득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수사적 질문(누가 당신들을 방해하여 진리에 설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까?)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집니다. 한 단락은 원인이고 다른 한 단락은 결과입니다.

원인: 누가 당신들을 방해하였습니까?

결과: 그 결과 당신들이 진리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아주 그럴 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방해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을 읽으십시오. 갈라디아 인들이 설득당한 그 유대주의의 논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난 것일까요? [현대론으로 말하면 인간들일 수도 있고 또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 또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듣고 배운 것들에 의해 자신의 세계관이나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낸 제도나 규율, 풍습 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도덕이나 윤리, 삶의 방식들로 인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당신의 의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 속박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장성한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9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더이를 부풀립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적은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유를 앗아가는 이런 누룩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기대와 애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혹당한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들을 미혹한 유대주의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전히 갖고 있는 신뢰는 무엇입니까? 또한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만약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자신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핍박을 당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당시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믿지만 초대교회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고전 12:3).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에도 담기조차 힘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의 말입니까? 사실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은 그리스도를 부인한데 있었다기 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주의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인 것입니다. 요즈음도 많은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에 무언가를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입에도 담기 힘든 말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화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13~18)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원어해석하기

- (13절) 당신들은 자유 위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ὁμοῖς γὰρ ἐπ' ἐλευθερίᾳ ἐκλήθητε.)
형제들이여 (ἀδελφοί·)
오직 자유가 육신에 의한 기회가 아닌 (μόνον μὴ τὴν ἐλευθερίαν εἰς ἀφορμὴν τῆ σαρκί·)
사랑을 통해 서로 섬기십시오 (ἀλλὰ διὰ τῆς ἀγάπης δουλεύετε ἀλλήλοις.)
- (14절) 모든 율법은 한 말씀에 의해 성취되어 왔습시다 (ὁ γὰρ πᾶς νόμος ἐν ἐνὶ λόγῳ πεπλήρωται.)
[다음] 한 말씀에 의해 (ἐν τῷ·)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웃을 당신들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
- (15절) 그러나 당신이 만약 서로 물고 뜯으면 (εἰ δὲ ἀλλήλους δάκνετε καὶ κατεσθίετε.)
당신들이 서로에 의해 멸망하지 않나 [분명히] 보십시오 (βλέπετε μὴ ὑπ' ἀλλήλων ἀναλωθῆτε.)
- (16절)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Λέγω δέ·)
당신들은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πνεύματι περιπατεῖτε)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καὶ ἐπιθυμίαν σαρκὸς οὐ μὴ τελέσητε.)
- (17절)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대항합니다 (ἡ γὰρ σὰρξ ἐπιθυμεῖ κα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대항합니다 (τὸ δὲ πνεῦμα κατὰ τῆς σαρκός·)
그것은 서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ταῦτα γὰρ ἀλλήλοις ἀντίκειται·)
만약 당신이 뜻을 세우면 그것을 못하게 하도록 (ἵνα μὴ ἂ ἐὰν θέλητε ταῦτα ποιῆτε.)
- (18절) 만약 당신이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면 (εἰ δὲ πνεύματι ἄγεσθε·)
당신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οὐκ ἐστὲ ὑπὸ νόμο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말씀은 두 단락(5:13~15, 5:16~18)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실상입니다. 누리고 못누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든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런 기질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걷는 삶과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 왔고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는 길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 안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13 절과 14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자유 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위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사랑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율법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롬 13:10 참조).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 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웃 사랑이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느끼며 “그것봐라 그럴줄 알았다니까! 결국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잖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 보아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자유’입니까? ‘율법’입니까?

15 절을 읽으십시오. 자유는 모든 행동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비난의 말을 퍼붓고 헐뜯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들을 비방하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분명 율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유’ 가운데로 나와야지!” 하는 말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 자유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조차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입니다. 당신은 지금 율법 아래 허덕이는 다른 분들을 볼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장성한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16 절부터 18 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이 부분은 16 절부터 24 절까지 이어지는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는 말씀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16 절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체의 욕망을 성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성취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소위 “육체의 욕망”은 방탕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명예, 품위, 자존심, 자랑거리 등등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새상의 것으로 포장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육체의 욕망이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17 절과 18 절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 모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적 성취는 교만과 자랑을 가져옵니다.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이 배어 나옵니다. 당신의 신앙 생활 과정에서 육체의 욕망(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에는 아주 건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과 성령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18 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과 ‘율법’을 대조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율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아 자신의 모습이 남들 보기에 좀더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일이 되더라”라는 간증을 하거나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율법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수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19~26)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원어해석하기

- (19절)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φανερὰ δὲ ἐστὶν τὰ ἔργα τῆς σαρκός,) 성적인 것과,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들입니다 (ἄτινὰ ἐστὶν πορνεία, ἀκαθαρσία, ἀσέλγεια,)
- (20절) 예배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우상)과 마술을 부리는 것과 (εἰδωλολατρία, φαρμακεία,) 적을 만드는 일과 분쟁과 시기하는 일과 분노하는 일과 (ἔχθραι, ἔρις, ζῆλος, θυμοί,) 사적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분리함과 당을 만드는 일과 (ἐριθειά, διχοστασίαι, αἵρέσεις,)
- (21절) 부러워함과 술취함과 지나친 향연과 그와같은 것들입니다 (φθόνοι, μέθαι, κῶμοι καὶ τὰ ὅμοια τούτοις,)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당신들에게 미리 말합니다 (ἃ προλέγω ὑμῖν,) 내가 전에 말을 했습니다 (καθὼς προεῖπον) 이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ὅτι οἱ τὰ τοιαῦτα πράσσοντες βασιλείαν θεοῦ οὐ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참음, 너그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ὁ δὲ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στὶν ἀγάπη χαρὰ εἰρήνη, μακροθυμία χρηστότης ἀγαθωσύνη, πίστις)
- (23절) 온유와 자기절제입니다 (πραύτης ἐγκράτεια·) 율법은 이러한 것들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κατὰ τῶν τοιούτων οὐκ ἔστιν νόμος.)
- (24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죄성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οἱ δὲ τοῦ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τὴν σάρκα ἐσταύρωσαν σὺν τοῖς παθήμασιν καὶ 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Εἰ ζῶμεν πνεύματι,)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πνεύματι καὶ στοιχῶμεν.)
- (26절) 우리는 서로 자기를 뽑내거나 서로 자극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μὴ γινώμεθα κενόδοξοι, ἀλλήλους προκαλούμενοι, ἀλλήλοις φθονοῦντε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나열한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또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 젖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22절)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일은 열매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일의 결과입니다.(이게 무슨 뜻인지??? 열매는 일의 결과라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성적타락, 더러움, 방탕함

잘못된 예배 (1): 우상, 마술

사회적 현상: 적을 만드는 일, 분쟁, 시기, 분노, 사적 욕망 추구, 분리, 당을 짓는 일, 부러워함

잘못된 세상종교 (2): 술취함과 지나친 향연

사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것은 종교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사람들의 생활은 신 (gods) 또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행 17:22).

“Men of Athens, I perceive that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Act 17:22 ESV).

모든 면에서 당신들은 종교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정당성을 얻는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종교적인 문제로 성적 타락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날 성적 타락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잘못된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란 다른 대상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속에 그려 놓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요”라는 생각이 당신 마음 속에 있고 그분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

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구약시대의 바알에게 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고 따르는 그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하나님이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음은 여러 사회적 현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되면 부러움이 들고 심한 경우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욕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 욕망을 스스로의 힘으로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순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안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런 것을 없애려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욕신의 욕망 중에서 가장 제어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25절 26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하나님에 의하여 맺히는 [성령]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인간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억지로 결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 26절). 당신은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24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20절에서 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를 죄성,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육체적 욕망과 죄성까지 못박은 것입니다. 당신은 바울이 말하는 죄성과 욕망이 어떤 것들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가? [목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6:1~5)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1절) 형제들이여 (Ἀδελφοί,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할 지라도
(εἰς καὶ προλημφθῆ ἄνθρωπος ἐν τινι παραπτώματι,
성령의 사람들인 당신들은 온유한 영으로 그것들을 바로 잡으십시오
(ὁμεῖς οἱ πνευματικοὶ καταρτίζετε τὸν τοιοῦτον ἐν πνεύματι πραύτητος,
당신이 유혹되지 않도록 당신을 살피면서 (σκοπῶν σεαυτὸν μὴ καὶ σὺ πειρασθῆς.)
- (2절) 당신들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Ἀλλήλων τὰ βάρη βαστάζετε)
이런 방법으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καὶ οὕτως ἀναπληρώσετε τὸν νόμον τοῦ Χριστοῦ.)
- (3절) 왜냐하면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이 아무 존재도 아님에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εἰ γὰρ δοκεῖ τις εἶναι τι μηδὲν ὄν,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φρεναπατᾶ ἑαυτόν.)
- (4절)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십시오 (τὸ δὲ ἔργον ἑαυτοῦ δοκιμαζέτω ἕκαστος,
그 때는 그 사람이 오직 자신을 향하여 자랑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καὶ τότε εἰς ἑαυτὸν μόνον τὸ καύχημα ἔξει)
남을 향한 것이 아닌 (καὶ οὐκ εἰς τὸν ἕτερον.)
- (5절) 왜냐하면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ἕκαστος γὰρ τὸ ἴδιον φορτίον βαστάσε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실제적인 동시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에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 이를 실질적인 삶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육신적인 삶과 성령안에서의 삶을 실질적인 면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6장1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령의 사람들인 당신들은 온유한 영으로 그것들을 바로 잡으십시오”입니다. 무엇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글 성경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도 괜찮지만 좀더 정확히 번역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할 지라도”(even if-)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 범죄에 연루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란 헬라어로 ‘바로스’(βάρος)인데 사람을 억누르는 부담감, 어떤 사람의 의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을 1절에 이어지는 것으로 읽으면 여기에서 짐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부담감으로 국한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로 인해 힘들어 하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바로스’(βάρος)라는 단어를 확대 해석할 경우 단순히 죄로 인한 짐 뿐 아니라 환란, 핍박, 재정적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확대 해석할 경우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6장3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갑자기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이 아무 존재도 아님에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면

서 잘난척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도 앞뒤 문맥을 보고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으시고 3절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남의 짐을 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함께 힘들어 한다거나, 재정적인 압박에 처한 사람을 보며 측은한 생각이 든 것 하나로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체 글에서 한 부분만 떼내어 동떨어진 해석을 하거나 다른 적용을 하면 성경저자의 뜻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라는 말은 실제로 남들의 짐을 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짐은 단순히 부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라는 식의 매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온 사랑의 실천의 기회를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혹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랑을 남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6:6-10)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원어해석하기

- (6절)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모든 선한 것으로 나누십시오
(Κοινωνείτω δὲ ὁ κατηχούμενος τὸν λόγον τῷ κατηχούντι ἐν πᾶσιν ἀγαθοῖς.)
- (7절)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Μὴ πλανᾶσθε,)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θεὸς οὐ μυκτηρίζεται.)
만약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ὁ γὰρ ἐὰν σπείρη ἄνθρωπος,)
그것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τοῦτο καὶ θερίσει·)
- (8절)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ὅτι ὁ σπείρων εἰς τὴν σάρκα ἑαυτοῦ ἐκ τῆς σαρκὸς θερίσει φθοράν,)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ὁ δὲ σπείρων εἰς τὸ πνεῦμα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θερίσ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 (9절) 낙심하지 마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동안 (τὸ δὲ καλὸν ποιῶντες μὴ ἐγκακῶμεν,)
우리는 시기가 되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καιρῷ γὰρ ἰδίῳ θερίσομεν)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μὴ ἐκλύομενοι.)
-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때에 (Ἄρα οὖν ὡς καιρὸν ἔχομεν,)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합시다 (ἐργαζώμεθα τὸ ἀγαθὸν πρὸς πάντας,)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말입니다 (μάλιστα δὲ πρὸς τοὺς οἰκείους τῆς πίστεω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 문제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다루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문 (6:6~10)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면 1: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모든 선한 것으로 나누십시오 (6 절).

권면 2: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7 절 상).

권면 3: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동안 낙심하지 맙시다 (9 절)

권면 4(1,2,3 종합):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선을 행합시다 (10 절)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총 세개의 개별적인 권면과 한개의 종합적인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면은 개개인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회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6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지침의 하나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들과 좋은 것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좋은 것을 재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재정적으로 그들의 교사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히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헌금은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가르치는 인도자의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가르치는 자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가 인도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자의 책무입니다.

7절과 8절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농사일을 예로 들면서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을 연상케하는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씨를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는 것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6절에 이어서 나왔고 9절과 10절이 나오기 전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이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어찌면 육체를 위하여 씨를 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진리에 복종하고 비진리를 따르는데 열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장성한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서 사도바울이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무엇에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열심입니다. 헌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썩을 것을 추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안에 거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당신이 성령을 위하여 싸를 심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9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있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선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언제 그 추수를 하게 될까요? 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동안의 권면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합시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가정을 우선시하라는 말입니까? 당신의 의견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오직 십자가 [토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6:11~18)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16.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원어해석하기

- (11절)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글을 보십시오 (ἴδετε πηλίκους ὑμῖν γράμμασιν ἔγραψα τῇ ἐμῇ χειρὶ.)
- (12절) 육체에 모양을 좋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 (“Ὅσοι θέλουσιν εὐπροσωπῆσαι ἐν σαρκί,) 당신들을 강요하여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οὗτοι ἀναγκάζουσιν ὑμᾶς περιτέμνεσθαι.)
[그러나]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함입니다 (μόνον ἵνα τῷ σταυρῷ τοῦ Χριστοῦ μὴ διώκωνται.)
- (13절) 왜냐하면 할례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οὐδὲ γὰρ οἱ περιτεμνόμενοι αὐτοὶ νόμον φυλάσσουσιν)
그러나 그들은 당신들이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ἀλλὰ θέλουσιν ὑμᾶς περιτέμνεσθαι,) 그들이 당신들의 육체로 자랑하고자 함입니다 (ἵνα ἐν τῇ ὑμετέρᾳ σαρκὶ καυχῶσινται.)
- (14절) 그러나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Ἐμοὶ δὲ μὴ γένοιτο καυχᾶσθαι)
만약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εἰ μὴ ἐν τῷ σταυρῷ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그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그러합니다] (δι’ οὗ ἔμοι κόσμος ἐσταύρωται καὶ γὰρ κόσμῳ.)
- (15절)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할례도 또한 무할례도 아니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οὔτε γὰρ περιτομὴ τί ἐστίν οὔτε ἀκροβυστία ἀλλὰ καινὴ κτίσις.)
- (16절) 그들은 모두 이 기준에 의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καὶ ὅσοι τῷ κανόνι τούτῳ στοιχήσουσιν,) 그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강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εἰρήνην ἐπ’ αὐτοὺς καὶ ἔλεος καὶ ἐπὶ τὸν Ἰσραὴλ τοῦ θεοῦ.)
- (17절) 지금부터 [남아 있는 시간동안] 아무도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Τοῦ λοιποῦ κόπους μοι μηδεὶς παρεχέτω·)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몸에 예수의 낙인을 갖고 있습니다

(ἐγὼ γὰρ τὰ στίγματα τοῦ Ἰησοῦ ἐν τῷ σώματί μου βαστάζω.)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들의 영과 함께, 형제들이여! 아멘!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με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ὑμῶν, ἀδελφοί· ἀμή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십자가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를 다시한 번 대조함으로써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 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마무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친필로 쓴 큰 글씨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12 절에서 15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정리되었던 할례 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선 논증을 통해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12 절부터 15 절에서 그 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2 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좋게 하려는 자들은 누구나 당신들을 강요하여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12 절과 13 절을 참조하십시오.)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목적은 핍박을 면하고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조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에는 인간들이 기여할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은 이런 복음 앞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까? 자신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14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니까?

15 절을 읽으시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바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8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낙인’이란 노예라는 신분과 그 소유권을 나타내고자 노예들의 등이나 어깨에 불로 지져 만든 흉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낙인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할례가 유대인임을 상징하는 낙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낙인은 그리스도인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할례와 그리스도의 낙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수 많은 박해를 받았기에 몸에는 그 핍박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흉터들을 낙인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낙인이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